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 (주)트위니, 특허청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참여로 물류 이송 로봇 상용화 성공 -

특허청은 2. 2.(금)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트위니(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IP-R&D)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 ①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 ② 해외장벽 특허를 극복 ③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유망특허 선점 등을 지원

주식회사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 전문기업으로, 특허청 사업을 통해 특허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 및 유아이(UI)/유엑스(UX)를 발굴·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 물류용 로봇을 상용화하였다. 다수의 해외 특허를 포함한 150여건의 지식재산(IP)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IP)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초격차 새싹기업(스타트업) 1000+ 선정, 한국엔지니어링 워크스와의 협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허 기반 연구개발 (IP-R&D) 사업 등 특허청 지원시책을 설명하며, 자율주행 로봇과 소프트웨어 등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전략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서비스 관점의 전략도 중요하다”며 “업계와 소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트위니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원혜 (042-481-8254)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박승배 (042-481-8469)

- 트위니는 공장 자동화와 물류센터 오더피킹* 등을 위해 실내외 공간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류 이송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KAIST 출신 연구인력)



* 오더피킹(Order Picking)은 주문받은 물품을 보관장소에서 꺼내 배송장소로 이동하는 것

□ 기업 개요

- 규모 및 업종 : 중소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본사 : 대전 유성구

□ 주요 연혁

- '15년: 법인 설립
- '18년: 로봇연구소 설치, 20억 투자유치(중진공)
- '21년: 예비유니콘 선정
- '22년: 해외시장 진출(베트남)
- '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한국엔지니어링웍스와의 협업

□ 지재권 보유현황

- (특허) 90건 출원·등록(국내 59, 미국 7, 중국 1, 유럽 1, 유럽 1, PCT 21)
- (상표) 47건 출원·등록(국내 41, 미국 4, 중국1, 유럽 1)
- (디자인) 17건 출원·등록(국내 17)

